페놀수지, 자동차 시장 적극진출

일본, 금속 대체소재로 채용 확대 … 내열성・경량성에 코스트 절감

일본의 페놀수지 메이커는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대기업인 Sumitomo Bakelite는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마찰재용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인 기업을 인수했으며, 플래스틱용 도료의 중견 메이커인 Cashew와 Showa Highpolymer가 마찰재용 페놀수지의 제조・판매에서 업무제휴를 맺고 각각의 강점을 살린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Asahi Organic Chemicals와 Gunei Chemical 등도 자동차 관련에 대한 사업전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용 페놀수지는 Brake Pad와 Lining, Clutch 부품 등의 마찰재와 내외장재 부품, 타이어 점착제・Bead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 뛰어난 내열성・경량성을 갖추고 있으며 코스트 절감도 가능해 금속을 대체 자동차 부품용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Sumitomo Bakelite는 2003년 봄, 벨기에 생산거점에서 타이어 점착제용 전용설비를 가동시켰으며 인도네시아 거점에서도 마찰재용 확대를 위해 증설했다. 또 페놀수지 및 페놀수지 성형재료에서 현재 약 40%인 자동차 부품용 비율을 50%까지 높일 방침이며 이를 위해 스페인의 마찰재 전문기업 페놀스 레진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마찰재용은 일본, 미국, 아시아에서 40-50%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며, 과제였던 유럽시장에서도 4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돼 세계 전개를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 Cashew는 자동차 마찰재용 페놀수지의 일부를 Showa Highpolymer에 위탁하는 업무제휴에도 나섰다.

Showa Highpolymer의 제조상의 스케줄 메리트를 살리며, 판매는 마찰 조정재도 취급하는 Cashew가 담당하게 되는데,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며 코스트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Asahi Organic Chemicals는 페놀수지, 주조용 RCS(Resin Coated Sand)의 주력생산거점인 아이치(愛知)공장에 본격적인 연구동을 2004년 3월에 완성시킬 예정이다.

공장 및 주변지역의 연구설비를 집약하고 Multi형 실험설비와 가압반응설비를 도입하게 되며 주조, 발포, 전자재료, 공업용 페놀수지와 Quartz Sand에 페놀수지를 피복한 RCS의 개발・개량, 신규제품 개발을 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sahi Organic Chemicals는 자동차 엔진 관련 중심인 RCS에서 악취와 Gum을 줄이기 위한 환경대응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요대응력을 한층 높여나갈 태세이다.

또 Gunei Chemical도 자동차 관련 주물용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전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1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